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와 구강위생계몽활동(口腔衛生啓蒙活動)

신재의 치과의원
신재의

ABSTRACT

The Hansung Dental Association and campaign for dental hygiene and welfare of members.

Shin Jai Eui's dental clinic
Shin Jai Eui, D.D.S.,M.S.D.,Ph.D.

The Hansung Dental Association established in 1925 was the organization made by the necessity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s only. In 1928, as its member increased, it made several departments and system for holding conferences and took several actions for dental research, campaign for oral hygiene and welfare of its members. In September 25th, 1935, the Hansung Dental Association joined the Combined Chosun Dental Association as the organization representing Korean dentists. In October the 1st, 1942, the Hansung Dental Association joined forcefully to the Kyungseong Dental Association in the name of 'Naesunilche' -- Japan and Korea are one--Korean dentists couldn't do any collective actions.

Activities for oral hygiene were done mainly by the event of 'decayed tooth preventive day'. Ham Suk Tae, Park Jun Young, Park Jun Dae organized the Hansung Dental Association for Koreans only and developed in various areas such as dental research, campaign for dental hygiene and welfare of members.

1. 서론

3·1운동으로 일제는 대한정책에 외형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외형상의 변화는 침략에 대한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고, '문화정치'라는 이름의 가식과

기만적인 제도상의 변질뿐이었다. 일제는 1922년 공포된 교육령은 학계를 개편하여 고등교육기관설치의 문도 열어 놓았다. 1922년 4월 1일에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경성치과의학교(京城齒科醫學校)을 설립하였다. 이 경성치과의학교는 제1회 졸업생을

1925년 4월 15일에 배출하였다. 이후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는 경성치과대학교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제안에 의하여 한국인만으로 조직되었다.

이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 이전에 이미 한국에는 일본인 치과의사와 치과의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개업한 치과의사는 일본인 치과의사 노다 오지(野田應治)이다. 그는 1893년 7월 이후에 일본 거류민을 위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했다. 경성치과의사회(京城齒科醫師會)는 1912년 1월 16일에 설립되었다.

한국인 치과의사는 일본인 치과의사들과의 친목이 필요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함께 단체활동을 하게 되어 한국인 치과의사는 경성치과의사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 후에 전국적인 단체인 조선치과대학회(朝鮮齒科醫學會) 및 조선치과의사회(朝鮮齒科醫師會)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이 조직은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한 일본인 치과의사를 위한 조직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조직으로 일본인들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었고, 한국인은 단체의 변두리에서 소외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가 한국인 치과의사만으로 설립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에 대하여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다. 단지 단편적인 자료들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기록은 《조선의보(朝鮮醫報)》의 것이다.

이 기록은 한성치과의사회는 창립 이래 회의 체제를 확장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¹⁾ 다음으로 《만선지치계(滿鮮之齒界)》의 기록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한 사실과 일제의 강압으로 해체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²⁾

박명진의 글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활동, 강제적으로 합병 당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는 한성치과의사회가 해방 후에 조선치과의사회로 다시 발족하고, 서울지회로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시키었다고 하였다.³⁾ 신인철의 글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회원의 가입, 회의 조직, 활동 그리고 강제 합병된 사실이 있다. 그도 해방 후에 한성치과의사회는 다시 부활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활동 중에 ‘호치일(護齒日)’ 혹은 ‘충치예방의 날’의 행사와 전시 중에 지금(地金), 약품, 재료의 배급 사업의 기록이 있다.⁴⁾ 김영창은 한성치과의사회가 한국인만의 독자성으로 감시 대상이었다가 합병되었다고 하였다.⁵⁾ 최정봉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은연중에 경성치과의사회와 대립하였다고 기술하였다.⁶⁾ 안중서는 한성치과의사회가 한국인만의 치과의사회로 운영되다가 일시 중단되고, 다시 결성되고, 발전되어서 오늘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⁷⁾

이한수는 한성치과의사회가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명목으로 경성치과의사회로 합류했다고 하였다.⁸⁾ 기창덕은 한성치과의사회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조선의보》에 기재된 한성치과의사회의 역원 명단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한성치과의사회의 사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친목과 상부상조의 단결기관으로 매주

1) 《朝鮮醫報》,〈雜報 漢城齒科醫師會 役員 改選〉1934.Vol 3, No. 4, 31쪽.;1936. Vol 6, No. 1, 21쪽.

2) 《滿鮮之齒界》, 1935. Vol. 4. No. 7, 42쪽.; Vol. 4. No. 10, 33쪽.; 1942.Vol. 11. No. 10, 37쪽.

3) 朴明鎭, 〈한국의 치과역사〉,《대한치과대학사연구회지》, 1960. 9-10쪽.

4) 申仁澈, 〈한국근대치과역사의 연역〉,《대한치과대학사연구회지》, 1960. 23-24쪽.

5) 金永昌, 〈8·15후의 치과계 발전상〉,《대한치과대학사연구회지》, 1960. 33쪽.

6) 崔正奉, 〈한국치과계개관〉,《대한치과대학사연구회지》, 1960. 40쪽.

7) 安鍾書,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대한치과대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1920-30년대 나의 치과역업 회고기〉,《대한치과대학사연구회지》, 1961. 54쪽.

8)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453쪽.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보이기도 했다.⁹⁾

임경빈은 한성치과의사회의 창립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별도의 단체가 결성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며 존재 의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¹⁰⁾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할 시기에는 국내적으로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으며, 치과계 내에서는 '호치일' 혹은 '충치예방의 날'로 구강위생계몽활동으로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우던 시기였다. 때문에 당시 주요 일간지인 동아일보에 함석태¹¹⁾, 박준영¹²⁾, 박준대¹³⁾의 구강위생계몽활동 기사가 연재 될 수 있었다. 변영남은 구강보건행사의 기원과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¹⁴⁾

일제강점기의 식민지에서 일본인 치과의사가 조직한 조선치과의사회는 명실 공히 일본인 치과의사를 위한 조직이었다. 소박한 친목을 위주로 한 단체는 전국적인 단체로 조직을 확대됨에 따라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모하였다. 가식과 기만적으로 결국에는 한국인 치과의사만으로 설립된 한성치과의사회를 해체시키고 병합하였다.

필자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한성치과의사회가 한국인만으로 구성되어 독자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한 사실을 살펴보고, 구강위생계몽활동 기사를 분석하여 구강위생계몽활동의 실상을 파악하려 한다.

2.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의 설립 배경

치과의사가 증가되어 전국적인 치과의사회가 필요하게 되었다. 1921년 10월 2일에 나라자기 도오요오(樺崎東陽)가 창립위원장을 맡고 그때의 경성치과의사회의 임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서 조선치과의사회를 조직하였다.¹⁵⁾이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한 일본인 치과의사를 위한 조직이었다. 전국적인 조직이 됨에 따라 친목을 주로 하던 조직에서 권익을 강조하는 단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일본인들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치과의학회는 1919년에 조직되었다. 회장은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이었고 매년 1회씩 학술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제2회 조선치과의학회는 1921년 10월 18일에 서울에서 열렸다.¹⁶⁾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咸錫泰)는 일본인 치과의사들과의 치과의학의 향상, 치과의사의 권익이나, 서로의 친목이 필요했을 것이다. 자연히 함께 단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석태는 경성치과의사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함석태는 이러한 치과의사회에 참석하면서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과 한국인들의 위생관념부족으로 직업의 어려움을 일본인 치과의사와의 단체 생활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 치과의사로서의 사회봉사적 어떠한 노력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¹⁷⁾

9)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奇昌德 편저,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195-202쪽.

10) 임경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기원에 대한 재조명>, 《우듬지》, 2002.

11) 함석태, <口腔衛生-緊急한 要件>, 동아일보, 1924. 2. 11.

12) 박준영, <치과위생>, 동아일보, 1926. 11. 16, 17.

13) 박준대, <충치와 음식의 관계>, 동아일보, 1928. 5. 13, 15.; <부인과 구강위생>, 동아일보,

1928. 5. 22, 23.; <어린이들의 구강위생>, 동아일보, 1928. 10. 2, 3, 4.

14) 변영남, <구강보건행사의 기원과 발전과정>, 《대한치과의사학회지》1999. 26-33쪽.

15) 《동아일보》, 1921. 10. 2.; 《매일신보》, 1921. 10. 5.

동아일보 "경성치과의사회 발기로 10월 2일 오전 8시 長谷天町 은행 집회소에서 全鮮齒科醫師會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더라"

16) 《동아일보》, 1921. 10. 18.

17) 함석태, 앞의 글.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전국적인 단체인 조선치과의학회 및 조선치과의사회에도 참석하게 되나 단체의 번두리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학창생활을 마친 후에는 개업의로서 비교적 안이한 생업을 택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학술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뿐이었다.¹⁸⁾

함석태의 성향은 이러하였다. 함석태는 일제 강점기에 치과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속한 전문 집단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도한 지식인이었다. 함석태는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당당함을 보여주어 치과의학에 대한 사회에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또한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데에도 책임을 감당하려 하였다.¹⁹⁾

함석태는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한국인이었다. 함석태의 손자 함각의 증언에 의하면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남대문역(서울역)에서 사이토(齊藤實) 총독을 저격했던 우국지사 강우규(姜宇奎)의 어린 손녀 강연재(姜英才)를 함석태가 맡아 장성하기까지 친딸처럼 키웠다는 것이다. 강영재 집에서 확인한 함석태의 사진 중에는 강영재가 함석태의 친손자들과 어울려 있었다. 이렇게 함석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일제강점기에 양녀로 키웠다는 사실은 함석태의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이 된다.²⁰⁾

함석태가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그는 장택상, 윤치영, 한상덕, 박병

래, 이한복, 이만규, 도상봉, 손재형와 이여성 등과 문화재 수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은 오세창의 지도로 민족문화재를 수집하는데 힘을 써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들은 문화재 수집 취미 덕분에 막역한 사이가 되고 저마다 내노라 하는 주장가였다고 하였다. 함석태는 그 열성이 하도 대단해서 심지어 기인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일화를 남기었다.²¹⁾

이러한 상황에서 뜻있는 하나의 단체가 조직되었다.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자 한국인만의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된 것이다.

3.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의 조직과 운영

한성치과의사회는 1925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제안에 의하여 한국인만으로 1925년에 조직된 치과의사회였다. 회원은 7명으로 회장에는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咸錫泰)가 추대되었고, 총무에는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안종서(安鐘書)를 선임하였다. 김용진(金溶璿), 최영식(崔永植), 박준영(朴俊榮)은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고, 조동흙(趙東欽)은 1925년 오오사까(大坂) 치과의학전문학교 졸업생이었고, 김연권(金然權)은 1923년 5월 16일 치과의사시험에 합격하였다.²²⁾

회원은 매년 증가되었다. 1926년에는 문기옥(文

18) 1922년 4월 1일 개교한 경성치과의학교에서 한국인 치과 학생들은 배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 환경은 일본인들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었다. 김영창의 글에 “허다한 국난과 불가피하게 봉착하는 애로를 극복하여야만 하는 學窓生活 가운데 학문의 탐구에 專力하는 동시에 적들에 대한 유형무형의 항쟁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역경과 싸우면서 수업한 연후에는 거의 대다수가 다만 습득한 臨床 기술을 응용하는 齒科開業醫로서 비교적 안이한 생업을 택하게 되고 계속해서 學窓에 정진하고자 하는 자는 극소수에 한하였던 것이다.”

19) 《滿鮮之齒界》, 1936. Vol. 5. No. 9, 23-24쪽.

20) 치과임상편집부,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 《치과임상》, 1985; 6, 23-29쪽.

21) 박병래, 앞의 신문, 〈집안망치는 골동〉; 〈금강산 연적〉

22) 안종서, 『우리나라 치과계의 속밭談』,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1925년에 치과의사회를 한국 사람끼리 조직하였다. 그때의 초대회장은 함석태이었고 회원은 전부가 7명 김용진, 김용권, 조동흙, 김창규, 박준영 그리고 나 안종서였다. 재미있는 것은 회원 7명이기에 모두가 간부요 모두가 회원이라는 것이었다.

箕玉), 박준대(朴準大), 이수만(李壽萬)이 입회하였고, 1927년에는 신헌식(申獻植), 신응현(申應鉉)이 참가하였다. 1928년에는 박명진(朴明鎭), 장지원(張志遠), 김종찬(金鍾瓚), 남수희(南壽熙), 신인철(申仁澈), 이유경(李有慶), 김용봉(金溶奉), 이천홍(李天興)이 가입하여 회원이 20명이 되었다²³⁾. 또한 1933년 말 총회에서 선출된 이동환(李東煥), 정보라(鄭保羅), 김종환(金鍾煥), 조경호(趙敬鎬)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들은 1928년 이후에 입회한 회원으로 추정된다.²⁴⁾

이와 같이 1936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정보라(鄭保羅) 이외에 안병식(安炳植), 한도수(韓道洙), 이수만(李壽萬), 김철용(金喆庸) 등도 1928년 이후에 가입된 회원일 것이다.²⁵⁾

1928년도부터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시키었다. 설립 시에는 회장과 총무뿐이었으나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부회장이 추가되었고 이사와 평의원제를 채택한 것은 회의 체계를 확립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임원이 개선되었다. 회장에는 함석태가 유임되었고, 부회장에 조동흠이 선임되었다. 이사에는 이동환, 이유경, 최영식, 평의원에 박명진, 정보라, 김종환, 남수희, 조경호를 선출하였다.²⁶⁾

1936년 총회에서는 회장 함석태, 부회장 조동흠이 유임되었고, 이사에는 정보라, 최영식, 남수희, 평의원에 박명진, 안병식, 한도수, 이수만, 김철용을

선출하였다.²⁷⁾

이 평의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은 많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평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39년 이후에는 박명진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가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할 때의 이사장은 조동흠이었고, 회장은 박명진이었다.²⁸⁾

1935년 9월 25일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참석한 사실은 통제를 하기 위한 가시적인 어려움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총회에 한성치과의사회가 함흥, 목포, 신의주, 전주, 광주, 평남, 수원, 개성의 치과의사회와 함께 한성치과의사회가 참석하였다.²⁹⁾

이때까지의 치과의사의 단체는 임의 단체였다. 이러한 통제는 치과의사 한사람 한사람을 치과의사회에 강제입회의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법정치과의사회의 건으로 정착되어, 실시 촉진하자고 했다.³⁰⁾

조선연합치과의사회가 법정치과의사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에게 가시적인 어려움이 작용하여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회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35년 6월 경성치과의사회의 간친회³¹⁾, 1936년의 총치예방

23) 申仁澈, 앞의 글, 23-24쪽.

24) 《朝鮮醫報》, Vol 3, No. 4, 31쪽. 1934.

25) 《朝鮮醫報》, Vol 6, No. 1, 21쪽. 1936.

26) 《朝鮮醫報》, Vol 3, No. 4, 31쪽. 1934.

27) 《朝鮮醫報》, Vol 6, No. 1, 21쪽. 1936.

28) 《滿鮮之齒界》, 1942. Vol. 11. No. 10, 37쪽.

29) 《滿鮮之齒界》, 1935. Vol. 4. No. 7, 42쪽.; Vol. 4. No. 10, 33쪽

30) 朝鮮聯合齒科醫師會總會는 1933년, 1934년, 1935년. 1939년에 법정치과의사회 문제를 의안으로 채택했다.

31) 『滿鮮之齒界』, 4권 7호, 1935. 42-43쪽. 京城齒科醫師會懇談會

경성치과의사회는 과반 총회에서 회장단 및 평의원을 선출하고 그 후 이사진을 선임한 바 있는데, 1935년 6월 18일 오후 7시 장곡천정은행집회소에서 신임원 피로연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飯塚회장, 滿田부회장을 비롯하여 신임원 및 회원과 경성의사회장, 조선치과의학회회장, 경성치과의학회회장, 조선연합치과의사회회장, 漢城치과의사회회장, 경성부 위생과장, 동대문서 위생과 주임, 신문 관계자

의 날³²⁾, 경성부치과의사회 25주년행사³³⁾, 1937년 원
단의 광고³⁴⁾, 1937년의 충치예방의 날³⁵⁾, 1937년 군

사후원연맹가맹³⁶⁾, 1939년의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
기 입훈식³⁷⁾, 1941년의 치아와 건강전람회³⁸⁾, 조선치

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의학계 문제를 중심으로 간담한 후 간친연을 베풀고 디저어트 코스에서 飯塚 회장의 인사와 내빈 대표로 河野 경성부 의사 회장의 사사가 있는 다음 화기 애매리에 산회하였다.

32) 『滿鮮之齒界』, 5권 7호, 1936. 35쪽. 京城의 蟲齒豫防 데이

충치예방 데이의 1936년 6월 4일, 경성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총독부 위생과, 경기도 위생과, 연합치과의사회 등 후원 하에 각 치과의원을 비롯하여, 전차, 버스에 이르기까지 대 선전 포스터와 셀로판 포스터 등 게시하여 구강위생사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각 치과의원을 개방하여 무료 상담과 치료를 했다. 한편, 오전 10시 30분부터 JODK를 통해 경성치과의사회 滿田회장 이「충치예방과 흡문 및 식량경제에 대하여」의 강연을 하고, 한성치과의사회 咸錫泰회장은 제2방송을 통해 충치예방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또한 각 학교에서도 강연하는 등 100% 효과의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날 밤 7시부터 경성호텔에서 경성치과의사회 주최로 회원 다수와 내빈 西龜총독부 위생과장을 비롯 사계 권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로 겸 간친회의 향연을 성대히 베풀었다.

33) 『滿鮮之齒界』, 5권 12호, 1936. 29쪽. 경성부치과의사회 25주년 행사

오랜 역사를 갖는 경성부치과의사회는 바야흐로 1912년 (명치45년) 1월 이래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아 11월 28일 회장 이하 전회원과 재성 치, 의, 약계는 물론 총독부, 경기도, 경성부를 비롯하여 일본 그밖에 치의학계와 관계있는 명사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끝으로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었다.

1. 창립 25주년 기념 봉고제

1. 창립 25주년 기념식 : 이어 동소강당에서 동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먼저, 齊藤씨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滿田 操 회장의 식사, 축사에 조선총독, 경기도지사, 경성부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장,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장, 경성부사회회장, 한성의사회장, 경성약제사회장,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 漢城齒科醫師會會長, 인천치과의사회장 등이 끝나자 축전을 낭독하고 나서, 동회 창립 이래의 공로자에 대한 표창식을 거행했다.

34) 『滿鮮之齒界』, 6권 1호, 1937. 3쪽. 광고

한성치과의사회가 조선연합치과의사회, 경성부치과의사회 등과 동등하게 광고 되고 있다.

35) 『滿鮮之齒界』, 6권 7호, 1937. 36쪽. 京城의 蟲齒豫防데이

1937년 6월 3일 오후 7시 경성호텔에서 관청 관계자와 회원과의 간친회 석상, 大澤회장으로부터 충치예방 데이에 관해 역설하여 일반 민중에 대하여 구강위생의 인식을 새로이 하고 한편 「언제까지라도 튼튼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는」제하로 大澤회장의 라디오 방송도 있었다. 예방 데이 이 날 총독부 위생과, 경기도 위생과, 각 서 위생과 후원회에 포스터 및 셀로판 포스터를 각 처 요소에 첩포하고 전차, 버스 수백 대에도 셀로판 포스터를 첩포했다. 또한 각 소학교에서는 조회 때 교장에게 강연 자료에 따른 충치예방에 관한 강화를 위촉하였으며, 각 치과의원에서는 漢城치과의사회 회원과 협력하여 각자의 진료실을 개방하여 무료 진사 및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36) 『滿鮮之齒界』, 6권 9호, 1937. 38쪽. 軍事後援聯盟加盟

中國北部 및 上海方面에 戰爭으로 인하여 軍事後援聯盟이 組織됨에 따라 朝鮮聯合齒科醫師會는 朝鮮軍事後援聯盟에, 또한 京城齒科醫師會 및 漢城齒科醫師會는 京城府軍事後援聯盟에 加盟하게 되었다.

37) 『滿鮮之齒界』, 8권 10호, 1939. 38쪽. 경성치과용품조합 조합기 入魂式 거행

경성에 있어서의 치과용 재료의 취급업자의 단체인 경성치과용품조합이 작년(1938)에 창립되었는데, 그 후 酒井조합장을 비롯 임원 제씨의 열성적 노력과 조합원 각위의 협조로 건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조합을 상징하는 조합기가 없어서 그 조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던 바, 뜻밖에도 송풍도치제조주식회사에서 조합기 기증을 자청하여 결국 조합축이 희망하는 도안으로 京都에서 조제했다. 조합기는 경성의 京을 중앙으로 하고 齒商의 두 글자를 금실로 표현한 마크를 중심으로 하여 바탕 색깔과의 배합이 어울리는 기이며, 이의 입훈식을 9월 23일 상오 9시 경성 신사에서 거행했다.

이 날 조합기를 주제로 하여 酒井조합장을 비롯한 전 조합원과 내빈으로 柳樂 경치전교장, 大澤조치연합회장, 齊藤경치회장, 朴明鎭한성치과의사회장, 安藤後藤風雲堂경성출장소장, 滿鮮之齒界사원 등이 참가했다. 그런데 경성의 조선인 치재상은 천일치과상회, 경성치과상회, 중앙치과상회, 삼경치과상회, 조일치과상회, 공영치과상회, 동경치과상회, 소화치과상회, 금성치과상회, 송죽양행, 일선치과상회, 삼정치과상회, 금광치과상회, 한성치과상회, 삼공치과상회 등이며, 지방은 대구의 남선치과상점, 목포의 남선치과상회, 광주의 해동치과상회 등이다.

38) 『滿鮮之齒界』, 10권 6호, 1941. 40쪽. 齒牙와 健康展覽會

1941년 4월 28일부터 3일간을 기하여 (중략)또한 인천, 경성, 개성 등에서 각 치과의사회 및 신문사 등 후원으로 강연회, 영화회를 개최하여 예년에 없던 열의와 정력으로 일반 민중에 대해 건강증강에 진력했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講演과 映畫會, 5월 2일 회장 인천 공회당 1일 3회 개최, 주최 인천부, 인천부 치과의사회, 대일본건강보국실천회, 후원 경기도 치과의사회, 5월 3일 경성부민관 「여학생의 모임」 오전 10시와 오후 1시 반의 2회, 주최 경성부 학교치과의사회 대일본건강보국실천회, 경성부치과의사회, 후원 경성부조선연합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5월 4일 오후 7시부터 경성 중앙크리스천년회관, 주최 漢城齒科醫師會 후원 대일본건강보국 실천회, 매일신보사, 경기도 치과의사회

과용품상조합이 상업조합령으로 발족³⁹⁾할 때에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치과의사회와 그 위치를 동등한 수준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가 한국인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과의사회였다는 사실은 광복 후 설립된 조선치과의사회의 성격에서도 보인다.

그 옛날의 치과의사회로서는 최초이던 한성치과의사회는 1920년경(1925년)에 창설되었던 것이다. (중략) 그래서 이회는 차차 커져서 한국인만으로서의 치과의사회로 태평양전쟁 초기까지 운영되다가 일시 중단되고 8·15 후에 다시 결성되더니 이제 다시 발전되어서 이른바 오늘날의 대한치과의사회라는 법정단체가 된 것이다.⁴⁰⁾

한편 1925년에 조직되었던 한성치과의사회가 일본관현의 간섭으로 1940년(1942년)에 폐지되었다가 해방 후인 1946년(1945년)에 조선치과의사회로 다시 발족하여 회장에 안중서 부회장에 문기옥 양씨가 피선되고 서울지회로는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시키어 회장에 김용진 부회장에 김연권 양씨가 피선되었고 조선치과의학회로 조선치과의사회의 한 기구로 포함시키어 회장에는 박명진씨가 피선되어 각각 운영하였다.⁴¹⁾

해방후 1945년 11월에 재경한국인치과의사들이 과거 해체하였던 한성치과의사회를 다시 부활하여 회장에 김용진 부회장에 김연권 안병식씨가 피임되어⁴²⁾

안중서는 한성치과의사회 설립 시의 총무였고,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의 회장였다. 그가 오늘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연원을 한성치과의사회에 두고 있는 것이다. 박명진은 한성치과의사회 설립 시의 창립 회원였고, 1939년 이후에 한성치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광복 후 조선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의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그가 오늘의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을 한성치과의사회에 두고, 오늘의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인철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그는 오늘의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가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계승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치과의사회가 한성치과의사회를 부활·계승했다는 것은 다음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 “한성”이라는 지역적 한정은 사실 의미가 없었다.(지방에서 개업하던 몇몇 치과의사가 회원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름만이 달랐을 뿐이지 한성치과의사회는 전 조선의 치과의사를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일한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였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해방 직후 새로 탄생한 “조선치과의사회”는 한성치과의사회의 맥을 이은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선 해방 후에 결성된 조선치과의사회는 한성치과의사회의 “부활”이라는 해석도 매우 타당한 견해라고 보여진다.⁴³⁾

39) 『滿鮮之齒界』, 10권 10호, 1941. 32-33쪽.

朝鮮齒科用品商組合 商業組合令으로 發足

전국의 중소상업자 60만 대망의 조선상업조합령이 1941년 3월 10일자로서 공포되어 朝鮮齒科用品商組合은 酒井이사장 이하 임원들이 통제조합인 법령에 의한 상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총독부 당국은 물론 각 관계자의 원조와 경성상공회의소 업무과의 지도로 착착 준비를 진행중이던 바 마침내 성안을 얻어 10월 6일 오후 2시 경성호텔에서 상업조합령에 의한 창립총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총독부위생과 西龜과장, 飯塚의무주임, 경기도 경성부, 경성상공회의소 각 대표자, 柳樂경성치과의전교장, 大澤조선치과의사회장, 外 경기도치과의사회장, 朴明鎭한성치과의사회장 등 내빈과 조합측에서 酒井이사장 및 간부는 물론 전국 각 지방의 업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국민의례가 있는 다음 만선치과상회 佐藤씨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인사겸 설립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보고에 이어 의안토의에 들어가서 의장에 酒井씨 추천되고 의사록 서명인으로 경성치과상회 西原씨, 경중치과상회 德山씨를 지명했다.(하략)

40) 안중서, 「우리나라 치의학계의 금석담」, 『대한치과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41) 朴明鎭, 「한국의 치의학」, 『대한치과학사연구회지』, 1960. 10쪽.

42) 申仁澈, 「한국근대치의학의 연혁」, 『대한치과학사연구회지』, 1960. 24쪽.

43) 편집부,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해방 이후의 치과의사 단체」, 『치과임상』, 1985. 12. 35쪽.

『치과임상』 편집부의 견해는 한성치과 의사회는 전 조선의 치과 의사를 포괄하는 한국인 치과 의사 단체였고, 광복 후에 결성된 조선치과 의사회는 한성치과 의사회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대한치과 의사협회 기원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치과 의사가 만든 조선치과 의사회에 기원을 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선치과 의사회의 성격은 광복 후에 결성된 조선치과 의사회라는 이름만 같을 뿐이었다. 광복 후에 조선치과 의사회를 결성한 치과 의사들은 한결 같이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조선치과 의사회를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멸시”⁴⁴⁾ “과거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한 압박과 질고”⁴⁵⁾ “왜 제국주의의 강압적 식민정책”⁴⁶⁾ “일본 침략주의적 구속”⁴⁷⁾ “폭약간인 착취적인 일본 팻소”⁴⁸⁾ “그 지독한 일본인, 일본 사람들 차별 아래에”⁴⁹⁾ “압박아래 눈물을 먹여 가며 비참한 생활”⁵⁰⁾ “경제적 착취, 치욕적”⁵¹⁾ 라고 표현되는 압박과 착취의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 치과 의사회였다고 말하고 있다.

일제는 국민총력동원 조선연맹을 만들어 1940년 조선연합치과 의사회 아래 도 단위 치과 의사회를 발족시켰었다.

이 도 단위 치과 의사회는 자재 배급 등을 이용하여 억압과 통제를 하게 된다.⁵²⁾ 1941년 3월 23일 조선연합치과 의사회의 가맹회장 회의에서 조선연합치과 의사회 개조의 건으로 종래의 각 지방 치과 의사

회는 도 산하로 들어가고, 그 후 각 지방 치과 의사회는 자연히 소멸되도록 결정했다.⁵³⁾ 다음으로 조선연합치과 의사회는 법적인 뒷받침을 하려 하였다. 1941년 5월 25일 제19회 총회는 치과 의사회령 발표 추진에 관한 건과 1942년 5월 24일 제20회 정기총회는 치과 의사회령 발표에 관한 건이 통과된 것이 그러한 것이다.⁵⁴⁾

이 후 일제는 서울에서 1942년 10월 1일에 한성치과 의사회를 경성치과 의사회와 강제로 합치게 한다. 이렇게 한성치과 의사회는 일제의 통제와 압력으로 와해되었다.

한성치과 의사회는 일제의 통제와 압력으로 와해되는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회의록 등은 남길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1935년에 한성치과 의사회가 가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선연합치과 의사회에 가입하는 사실과 1942년 10월 1일에 한성치과 의사회를 경성치과 의사회와 강제로 합치게 하는 것은 한성치과 의사회가 의연하게 존재했던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한성치과 의사회의 설립 시에는 친목기관으로 매우 만날 수 있었다. 한성치과 의사회에서는 임상적 토론으로 실패담 또는 성공담 등을 행하여 상호간에 지식을 교환하는 정도이었으나 회 운영이 잘되었다고 증언되고 있다. 그러나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회의 목적이 친목 이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지로 발전하게 되었다.⁵⁵⁾

44) 徐丙瑞, 「8·15後 齒科醫師會의 동향」, 『朝鮮齒界』 창간호, 1946. 85쪽.

45) 朴明鎭, 「代辯者의 役割을 完遂하라」, 『朝鮮齒界』 창간호, 1946. 38쪽.

46) 文箕玉, 「祝 朝鮮齒界 創刊」, 『朝鮮齒界』 창간호, 1946. 41쪽.

47) 朴鎔德, 「朝鮮齒界 創刊을 祝함」, 『朝鮮齒界』 창간호, 1946. 43쪽.

48) 韓宅東, 「齒科醫師의 使命의 再認識과 質的 進歩 向上에 對하여」, 『朝鮮齒界』 창간호, 1946. 49쪽.

49) 李有慶, 「建國의 大業을 成就하자」, 『朝鮮齒界』 창간호, 1946. 75쪽.

50) 車文軾, 「齒科材料 確保에 對한 所感」, 『朝鮮齒界』 창간호, 1946. 80쪽.

51) 李憲顯, 「朝鮮齒科 商工界에 對하여」, 『朝鮮齒界』 창간호, 1946. 82, 83쪽.

52) 이 자재 문제는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朝鮮聯合齒科醫師會 總會의 주요 안건이었다.

53) 서울특별시치과 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 의사회회사》, 1995. 160쪽.

54) 서울특별시치과 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 의사회회사》, 1995. 161, 164쪽.

55) 申仁澈, 앞의 글, 23-24쪽.

4. 한성치과의사회(漢城齒科醫師會)의 구강 위생계몽활동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되어 활동할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으므로 한성치과의사회의 구강위생계몽활동은 일제의 보건의료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도쿄(東京)에서는 1920년 11월 5일 일본연합치과의사회와 동경시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체한 내무성 아동위생전람회로 '우치의 날'의 행사를 하였다.⁵⁶⁾ 서울에서는 경성치과의학교의 학생들은 구강위생의 하기순회강연을 하였다.⁵⁷⁾ 1926년 5월 4일 '호치일'로 정하고 구강위생계몽활동을 하게 되었다. 1927년에는 구강위생계몽 강연회를 하였다.⁵⁸⁾

전국적인 행사는 1928년 제1회 '충치예방의 날'로서 일본과 한국에서 각 치과의사회, 문부, 내무성의 지원으로 행사를 하였다.⁵⁹⁾ 1930년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치과의사회 주최로 "충치예방의 날"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단독으로 행사를 하기도 했다. 1936년과 1937년 6월 4일 충치예방의 날에 한성치과의사회는 회원과 협력하여 무료 검사 및 치료하기도 했다. 특히 1937년 6월 4일 한성치과의사회회장 함석태는 제2방송을 통해 충치예방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⁶⁰⁾

1941년 5월 4일 경성 중앙그리스도청년회관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가 주최하며, 후원 대일본건강보국실천회, 매일신보사, 경기도 치과의사회아래 구강

위생 및 학생의 건강을 위한 강연 및 영화회를 경성치과의사회와 나누어 실시하기도 했다.⁶¹⁾

매년 실시된 이러한 행사는 학교와 사회일반을 위하여 계획되었는데 학생의 구강검사를 비롯하여 구강위생상담, 무료진료, 강연, 표어모집, 팸플릿 제작 배포, 전람회, 슬라이드 및 영화 상영 등으로 이루어졌다.⁶²⁾

한성치과의사회에 속한 치과의사의 구강위생계몽활동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함석태의 글은 서울에서 각 치과의사회 주체로 충치 예방 행사를 하기 이전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함석태 자신의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였다. 박준영의 글도 1926년 5월 4일 '호치일'과는 상관없이 1926년 11월에 쓰여진 글로서 근래 문명이 들어옴에 따라 치아위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박준대의 글은 1928년 5월에 음식과 충치, 부인과 구강위생에 관한 것과 10월에 어린이의 구강위생에 관한 것이다. 특히 문명에 대한 반발까지 보이며 충치 이환율의 증가는 음식물의 변화에서 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사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한성치과의사회가 한국인만으로 구성되어 독자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며, 당시의 구강위생계몽활동의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

함석태는 치과위생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으며⁶³⁾ 개업 안내 광고에서도 차별화된 구강위생계몽활동

56)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196쪽.

57) 《동아일보》 1924년 7월 12일 자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학생 문경옥 외 수명은 위생강연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여름동안 남도 지방을 순회하고, 다시 북도로 향할 예정이라는데 예명한 일당은 다음과 같다더라.

○ 순회 일정 급 방문

13일 대전, 14일 강원, 15일 이리, 16일 전주, 17일 김제, 18일 무안, 19일 영광, 20일 목포, 22일 광주, 23일 군산, 25일 홍성, 27일 예산, 28일 서산, 29일 당진, 30일 공주, 8월 1일 온양, 2일, 천안, 3일 수원, 4일 서울도착, 5일 서울 북쪽 방면.)

58) 申仁澈, 앞의 글, 23-24쪽.

59)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앞의 책, 196쪽.

60)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사》, 1995. 141, 143쪽.

61) 최효봉, 이병태, 《요람시대의 우리나라 치과 14》, 《치과연구》 1987. Vol.22. No.3. 50쪽

62) 신인철, 앞의 책, 24쪽.

63) 奇昌德 편저,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200쪽.

을 하고 있었다.⁶⁴⁾ 그는 한국 사회에서나 교육가도 좀더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랐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에서 한결 같이 치과의사로서 사회봉사를 하려 했다. 그는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일본인 치과의사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독무대로 인구비례에서 일본인들에 비하여 유리하나 개업이 어려웠고,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직업인으로 한국인 치과의사는 힘든 상태였다.

此可憐한 獨舞臺의 過程을 經過하는 十年의 長才月에 自己營業 以外의 무슨 齒科醫로서의 社會奉仕의 何等勞力이든지 辭치 아니 하겠다는 생각은 實히 綿綿不絶이 었습니다. 그러나 此方面으로 우리 社會의 衛生觀念이 一向不進하니 至今形便으로는 不禁이 自禁으로 朝鮮社會와는 相互交涉이 적어지고(중략) 願컨데 우리 一般社會나 教育家에서도 좀 더 一般衛生 乃至 口腔衛生을 理解하여 주면 비록 一個人의 微力으로라도 幸히 附職의 望을 達할가 하나이다.⁶⁵⁾

함석태는 한국 학생의 구강의 건강상태는 실지조사한 일이 없어 명확하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 학생의 구강위생에 주의하기를 바랐다. 한국인 학교는 구강검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함석태는 일본인 치과의사가 부족하여 일본인 학교에 가서 구강검사를 하였다. 함석태가 검사한 일본 학생의 구강검사 성적은 충치 없고 치아의 발육이 완전한 학생이 사쿠라이(櫻井)소학교 학생수가 963명 중에 7-8명에 불과하니 1%가 못되었다. 함석태는 이러한 통계와 비교하여 한국인 학생의 구강위생에 관심을 보였다.

함석태는 한국인 학생의 칫솔질에 관심을 가졌다. 칫솔의 사용률 즉 매일 규칙적으로 양치를 하는 일본 학생은 연령이 7-11세에서 20-30%였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양치를 하는 관습 때문에 더 적을 것이다. 일본 학생이 사용하는 치약과 칫솔은 좋은 것을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 학생은 식염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식염양치일망정 어른들이 규칙적으로 시키는 가정도 적다. 서울의 한국 학생들도 일본 학생과 같이 과자나 당분을 많이 먹게 되었다. 충치를 예방하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의 치아 건강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를 숙지하여 구강위생의 문제를 더욱 주의하여야 하겠다.⁶⁶⁾

이와 같이 함석태는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한국 사회와 한국 학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10년 동안의 경험에서 한결 같이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사회봉사를 하려 했다. 그는 위생관념의 부족을 한국 사회에서나 교육가에게 좀 더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을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함석태는 일본인 학교에서 구강검사를 하는 중에도, 칫솔의 사용에 있어도 한국 학생의 구강위생에 주의하기를 계몽하였다.

박준영은 근래 문명이 들어옴에 따라 치아위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분이 많은 과자류를 많이 먹게 되므로 치아환자가 5할이나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조선은 기후에 적당함과 天然的 產物인 食物을 大部分 調理하여 기호품을 맨드러 먹으니, 보다 生食하는 일도 만코, 또 食物이 白米로 單調하여 별로 복잡한 加味를 느어 料理치 안은 습관상 齒牙가 대개 튼튼하여 별로 치아위생을 중요이 보지 안엇지만 文明에 進運을 달아 食物에 종류가 복잡하여 지며, 치아에 害될 糖粉이 만은 과자류를 만이 먹은 관계로 近來에 와서는 齒牙患者가 全人口에 五割을 占케 되고 또한 치아위생 필요를 인정하게 됨을 따라 치광의 아 속출케 되었습니다. 내가

64) 동아일보, 1924년 원단 광고

65) 咸錫泰, 앞의 글.

66) 咸錫泰, 앞의 글.

치아위생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一般이 상식으로 알아 둘 일과 치아병으로부터 原因이 되며 인체에 어떠한 모 든 병이 생기는 것을 간단히 적어 볼 가 합니다.⁶⁷⁾

충치, 풍치, 구취의 원인은 입 속의 청결하지 못 함과 심한 자극 등에 의하므로 원인 제거에 의한 구강위생계몽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치과 의사의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간단한 처방약을 소개하였다. 치아에 생긴 병과 좋지 않은 습관으로부터 생기는 이차적인 질병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박준영은 근래 문명이 들어옴에 따라 치아위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입 속의 청결하지 못함으로 당분이 충치, 풍치, 구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원인 제거를 하도록 구강위생계몽을 하였다.

1927년에 한국인 학생의 충치 환자는 20%을 넘 었다. 일본인 학생은 1/2-2/3가 충치 환자에 비하 면 아직 좋은 성적이라 하겠으나 한국인 학생의 충 치 환자는 20%가 넘는 것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이어서 충치 생성 원인에 대해서 범람질을 침범하는 유산과 린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이를 닦는 습관을 아침저녁으로 하 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하였다.⁶⁸⁾

박준대는 충치 이환율의 증가는 음식물의 변화에 서 온다고 하며 문명에 대한 반발까지 보인다. 근 대문화의 은덕으로 생활의 풍부함을 부인 할 수 없 는 현실이나, 건강은 그렇지 못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지금의 문화가 피상적 문화로 아직도 참된 문명 이 아닌 까닭이다. 충치는 일종의 문명병으로 결핵, 매독과 같이 소위 세계의 삼대 문명병이다. 그중 충치는 결핵, 매독에 비하여 극히 보편적이다. 그렇 지만 한국사회에는 아직까지 구강위생운동을 확인

하기 어렵다. 치과 의사의 노력과 민중의 자각이 있 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

충치의 원인은 국소적 원인과 일반적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식물성 식품이 충치 예방에 관계 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완전한 발육과 일반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문화적 음식이라 했 다. 자연 법칙에 순종하면 장수 할 것이다. 장수하 는 사람은 소년기부터 식물성 음식을 섭취한 사람 중에서 발견된다. 고대 인류에게 충치가 없었고, 문 화의 발달에 따라 충치 수가 증가한다. 문화에 따 라 화식을 좋아하고 사탕의 과도한 소비가 생긴다. 악골과 치아의 운동이 충분치 못하여 얼굴은 점점 협장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음료수를 끊 어 복용하므로 탄산칼슘이 증발되어 영양 손실이 오고 있다.⁶⁹⁾

박준대는 임신부는 태중에서부터 건강에 주의하 여야 한다. 얼굴의 미는 치아의 배열 위치에 따라 서 좌우된다. 어린아이 때부터 치아를 교정하게 되 면 얼굴 곡선미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언 청이는 어머니의 영양부족, 혹은 정신 충격으로 생 길 수도 있다.

치과 환자 중 6할은 부인이다. 부인은 남자보다 충치에 걸리기 쉽다. 충치는 월경과다의 결과로 빈 혈증이 합병하여 영양결핍으로 석회분의 탈회작용 으로 생길 수 있다. 임신부는 태아의 발육에 필요 한 유산염류가 임신부의 신체와 치아에 있는 것도 공급될 수도 있다. 결국 임신부의 치아는 영양상 손해를 입어 충치가 발생한다. 월경 시에는 구강점 막에 충혈으로 구강염이 발생하며, 치통, 편두통 혹 은 삼차신경통 같은 신경통도 있다.⁷⁰⁾

박준대는 구강위생이 행복의 열쇠이라 하였다. 속담에 '이는 오복에 든다'는 말과 입은 복의 근원 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말이며 위생학과 세균학적인

67) 박준영, <치과위생>, 동아일보 1926. 11. 16-17.

68) 《동아일보》, 1927. 8. 28.

69) 박준대, <충치와 음식의 관계>, 동아일보, 1928. 5. 13, 15.

70) 박준대, <부인과 구강위생>, 동아일보, 1928. 5. 22, 23.

로도 옳은 말이다. 인간에게 제일 행복 된 것은 건강이다. 질병은 신체에 저항력이 부족으로, 저항력이 부족은 위장의 쇠약으로, 위장의 쇠약은 구강위생에 게을리 함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구강위생이 행복의 열쇠이다.

박준대는 어린이의 구강을 청결을 강조하였다. 출생한 뒤로부터 '이' 나기까지 아기는 '이' 는 생겨 있지만 단지 구강내에 나오지 않고 악골 속에 잠복하고 있다. 구강을 불결하면 구열이 발생하고 구취가 나게 된다. 그 원인으로 전신적 혹은 국소적으로 여러 가지 병을 발생한다. 더욱 이가 나오려 할 때 치아발생의 생리적 자극으로 침을 많이 흘리게 된다. 어린아이는 입에 넣고 빨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더러운 것이 위장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의 병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의 구강은 그 온도가 모든 세균이 발육하기에 가장 적당하다. 그러므로 구강점막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가장 필요하다.

만 2살까지 발생한 20개의 유치는 저작기관으로 영양 섭취에 중대한 임무가 있다. 유치는 음식물 저작, 악골과 안면의 발육, 영구치 출은 공간 제공과 자연 출은을 하게 한다. 어린이에게 구강염이 점막 즉 잇몸, 구개, 혀, 인후 등의 표면에 발생한다. 대개 원인에는 제일 구강내의 불결한 것이 가장 큰 병원이 된다. 이러한 구강염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가답아성, 궤양성, 아포답성 구내염, 수암, 아구염이 발생한다.⁷¹⁾

이와 같이 박준대는 충치 이환율의 증가는 음식물의 변화에서 온다고 하며 문명에 대한 반발까지 보인다. 지금의 문화가 피상적 문화로 아직도 참된 문명이 아닌 까닭이다. 충치는 일종의 문명병이다. 특히 식물성 식품이 충치 예방에 관계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박준대는 임산부는 태중에서부터 건강에 주의하여야 한다. 치아의 배열 교정으로 얼굴 곡선미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부인은 남자보다

충치에 걸리기 쉬우며 구강점막에 충혈으로 구강염이 발생하며, 치통, 편두통 혹은 삼차신경통 같은 신경통도 생길 수도 있다. 박준대는 어린이의 구강을 청결을 강조하였다. 구강점막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치는 저작기관으로 영양 섭취에 중대한 임무가 있다. 유치는 음식물 저작, 악골과 안면의 발육, 영구치 출은 공간 제공과 자연 출은을 하게 한다. 어린이에게 구강염이 점막 즉 잇몸, 구개, 혀, 인후 등의 표면에 발생한다.

5. 결 론

3·1운동으로 일제는 '문화정치' 라는 이름의 가치와 기만적인 제도상의 변질뿐이었고, 침략에 대한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가 1922년에 공포한 교육령으로 4월 1일에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되었다.

한국에는 이미 일본인 치과의사와 치과의사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경성치과의사회는 소박한 친목을 주로 하던 단체였으나, 권익을 강조하는 전국적인 단체인 조선치과의학회 및 조선치과의사회로 변모하였다. 이들 단체는 일본인 치과의사에 의한 일본인 치과의사를 위한 조직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조직으로 일본인들의 단결은 더욱 강화되었고, 한국인들은 단체의 변두리에서 소외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가 설립할 시기에는 국내적으로는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으며, 치과계 내에서는 구강위생계몽활동으로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우던 시기였다. 한성치과의사회는 1925년 4월 15일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로 졸업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제안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회원은 7명에서 매년 증가되었다. 회장은 함석태였다.

71) 박준대, <어린이들의 구강위생>, 동아일보, 1928. 10. 2, 3, 4.

회장 함석태의 성향은 이러하였다. 그는 경성치과의사회에 참석하며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업과 한국인들의 위생관념부족으로 직업의 어려움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 치과의사로서의 사회봉사적 어떠한 노력도 하겠다고 하였다. 함석태는 강우규의 어린 손녀 강영재를 일제강점기에 양녀로 키웠다는 사실은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함석태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1928년도부터는 각 부서를 결정하여 회의 체계를 확립시키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 설립 시에는 회장과 총무뿐이었으나 1933년 12월 31일 총회에서는 부회장이 추가되었고 이사와 평의원제를 채택한 것은 회의 체계를 확립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1935년 9월 25일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가 하나의 치과의사회로써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참석한 사실은 통제를 위한 가시적인 어려움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일제는 국민총동원 조선연맹의 강압에 의해 1940년 조선연합치과의사회 아래도 단위 치과의사회를 발족시켰었다. 한편 일제는 서울에서 1942년 10월 1일에 한성치과의사회를 경성치과의사회와 강제로 합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의연하게 존재했던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의 감시와 압력으로 와해되는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회의록 등은 남길 수 없었을 것이다.

한성치과의사회의 설립 시에는 친목기관으로 매주 만날 수 있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임상적 토론으로 실패담 또는 성공담 등을 행하여 상호간에 지식을 교환하는 정도이었으나 회 운영은 잘되었다. 그러나 회원이 증가되고 회의 체계가 확립되자 회의 목적이 친목 이외에 학술연구, 구강위생계몽, 회원복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였으므로 구강위생계몽활동은 일제의 보건의료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 행하던 구강위생계몽활동은 전국

적인 행사가 되었다. 일본인들이 조선치과의사회 주최로 “충치예방의 날”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단독으로 행사를 하기도 했다.

한성치과의사회에 속한 치과의사의 구강위생계몽활동에 관한 기사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한성치과의사회가 한국인만으로 구성되어 독자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며, 당시의 구강위생계몽활동의 실상을 파악하게 한다.

함석태는 치과위생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으며 개업 안내 광고에서도 차별화된 구강위생계몽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한국 사회와 한국 학생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10년 동안의 경험에서 한결 같이 한국인 치과의사로서 사회봉사를 하려 했다. 그는 위생관념의 부족을 한국 사회에서나 교육가에게 좀 더 일반위생과 구강위생을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였다. 그는 일본인 학교에서 구강검사를 하는 중에도, 칫솔의 사용에 있어도 한국 학생의 구강위생에 주의하기를 계몽하였다.

박준영은 근래 문명이 들어옴에 따라 치아위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입 속의 청결하지 못함으로 당분이 충치, 풍치, 구취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원인 제거를 하도록 구강위생계몽을 하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닦는 습관을 아침저녁으로 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하였다.

박준대는 문명에 대한 반발까지 보이며 충치 이환율의 증가는 음식물의 변화에서 온다고 하였다. 지금의 문화가 피상적 문화로 아직도 참된 문명이 아닌 까닭이다. 충치는 일종의 문명병이다. 특히 식물성 식품이 충치 예방에 관계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박준대는 입산부는 태중에서부터 건강에 주의하여야 한다. 치아의 배열 교정으로 얼굴 곡선미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부인은 남자보다 충치에 걸리기 쉬우며, 구강점막에 충혈으로 구강염이 발생하며, 치통, 편두통 혹은 삼차신경통 같은 신경통도 생길 수도 있다. 박준대는 어린이의 구강을

청결을 강조하였다. 구강점막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치는 저작기관으로 영양 섭취와 조직의 발육에 중대한 임무가 있다. 어린이에게 구강염이 점막 즉 잇몸, 구개, 혀, 인후 등의 표면에 발생한다.

이렇듯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한성치과의사회는 한국인만으로 구성되어 독자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구강위생계몽활동 기사를 분석하여 구강위생계몽활동의 실상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참 고 문 헌

《조선총독부관보》

《朝鮮醫報》

《滿鮮之齒界》

《동아일보》

《매일신보》

《중앙일보》

金永昌, 〈8·15후의 치과계 발전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朴明鎭, 〈한국의 치과의학〉,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申仁澈, 〈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崔正奉, 〈한국치과계개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咸錫泰, 〈구강위생-- 긴급한 요건〉,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檜崎東陽, 〈조선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물어〉,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安鍾書,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李鎬坤, 〈1920-30년대 나의 치과의업 회고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垣見庸三, 〈조선치과의 회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경성치과의학교의 연역대요〉,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生田信保, 〈경성제국대학의학부 치과학교실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1.

柳樂達見, 〈경성치과의학교 창설기〉,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2.

윤계찬, 〈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1,2,3, 《치계》, Vol. 2, No. 9, 10, 12, 1968.

회사편찬특별위원회, 《동경치과의사회70년사》, 사단법인 동경치과의사회, 1968.

주요한, 『안도산전』, 삼중당, 1975.

박병래, 『백자에의 향수』, 심설당, 1980.

치과임상편집부, 〈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 《치과임상》, 1985; 6.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齒科醫史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정양모,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소장유물도록 수정선생수집문화재』, 국립중앙박물관, 1988.

장병해, 『상록의 자유혼』, 창랑장택상기념사업회, 1992.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奇昌德 편저,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 아카데미아, 1995.

김상태 편역, 『윤치호 일기』 1916-1943, 역사비평사, 2001.

임경빈,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기원에 대한 재조명〉, 《우듬지》, 2002.